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nternet Addiction
on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조성상(Sung Sang Jo)¹⁾
이서원(Seo Won Lee)²⁾

ABSTRACT

The researchers surveyed 539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South Korea (2005)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and internet addiction on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as a victim or a bystander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2) both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and internet addiction reinforced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but the influence of the latter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former, 3) The degrees of domestic violences and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far surpassed the world average. Therefore, this study proved the urgent need for the prevention and cure programs for Korean adolescent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공격성(aggressiveness),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인터넷 중독 (internet addic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이에 따른 문제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

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4년과 2005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자가 각각 20.3%, 15.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청소년 약 6명 당 1명이 중독이라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인터넷 중독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잘

¹⁾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²⁾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 Sang J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 ssjo0310@hanmail.net

말해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심한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2005년 대구에서 발생한 5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인터넷게임을 하다 숨진 사건이나, 2001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있던 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살해한 사건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두 가지 경험이 공격성이나 폭력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강상은, 2004; 김옥순·홍혜영, 1998; 김종범·한종철, 2001; 김효선, 2002; 이소영, 2000). 최근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기존의 정신병리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이정윤, 2005; Orzack, 1999).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실제 피해 경험에 따른 공격성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 중 노출경험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아동집단이 그렇지 않은 아동집단보다 친구에 대한 폭력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서원, 2005; Cummings, 1994; Patterson, 1986; Rosenbaum & O'Leary, 1981),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진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이 높았다(Carlson, 1990; Hughes, 1988; Jaffe, Wolfe & Wilson, 1990; Peled & Edelson, 1995). 또한 김혜원·이해경(2000)의 연구결과,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초등학생들의 또래 괴롭

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체험 경험과 공격성의 연구결과들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직접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공격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자영, 1991; 김갑숙, 1993; 김재엽·양혜원, 1998; 최윤라, 1989).

한편 현재까지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애숙, 1993; 박창한, 1993; 주상현, 2004) 가정형편이 불우하고 학업성취능력이 취약한 경우 더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돈규, 2003; 주상현, 2004).

그런데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따로 규명하기는 했지만,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의 요인을 규명할 때 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폭력 변인과 인터넷 중독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을 더욱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 및 인터넷 중독 실태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변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가정폭력 경험 변인으로는 부모사이의 폭력에 노출된 부부폭력 노출 경험, 부모에게 직접 폭력을 당한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 변인을 선정하였고, 인터넷 중독 변인, 공격성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및 가정형편, 학업성취정도를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가정형편, 학업성적)과 인터넷 중독 정도, 가정폭력 경험여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차이를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4>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6$)

	구 분	N(%)
청소년의 성별	남학생	372(78.2)
	여학생	104(21.8)
청소년의 학년	중 3	476(100.0)
청소년의 성적	상(상위 20% 이내)	125(26.3)
	상중(상위 20~40%)	84(17.6)
	중(상위 40~60%)	126(26.5)
	중하(상위 60~80%)	88(18.5)
	하(상위 80% 이하)	46(9.7)
가정 형편	무응답	7(1.5)
	매우 부유한 편	14(2.9)
	비교적 부유한 편	119(25.0)
	보통	282(59.2)
	비교적 어려운 편	35(7.4)
	매우 어려운 편	10(2.1)
	무응답	16(3.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강북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곳과 강남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93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 476명의 조사 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청소년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78.2%(N=372)이었고 여학생은 21.8%

($N=104$)이었다. 응답자 자신의 성적을 스스로 응답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적은 질문에 제시한 응답범주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가정형편은 응답자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응답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가정형편의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2%($N=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부유하거나 매우 부유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5.0%($N=119$), 2.9%($N=14$)이었으며 비교적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7.4%($N=35$), 2.1%($N=1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은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 폭력 과학대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 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TS는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을 조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부부간의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사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문항은 모두 중복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도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행사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1) 부부폭력 노출 경험

문항 수는 언어적 폭력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의 한 문항, 경미한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세계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세 문항, 심각한 폭력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의 세 문항 등 총 7문항이다. 각 문항은 ‘없음’(1점)부터 ‘10번 이상’(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84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문항 수는 부부폭력 노출 경험 문항과 동일하며 측정 방법 및 점수 계산 역시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중독

Young(1998)이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국내의 인터넷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써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금단증상, 내성, 학업부진, 가정 및 학교생활 소홀, 대인관계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점수의 합계가 20~39점인 사람은 인터넷 이용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 ‘평범한 이용자’로, 40~69점은 인터넷 이용이 일상생활에 일부 문제를 미치는 ‘잠재적 중독자’로, 70~100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독자’으로 분류한다(전찬근, 2004). 본 연구에서는 ‘평범한 이용자’를 ‘비중독자’로, ‘중독자’를 ‘심각한 중독자’로 재정의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3) 공격성

Buss와 Perry(1992)가 제작한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및 분노 등 4개 요인에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 값은 .89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척도를 정동화가 문항분석을 통해서 신체적 공격성 6문항, 언어적 공격성 6문항, 적의성 5문항, 분노 4문항의 4개 하위요인, 21문항으로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8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신체적 공격성 .71, 언어적 공격성 .67, 적의성 .64, 분노 .5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 여부와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가정폭력 실태

1) 가정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보았다. 가정폭력 경험은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 두 경우 중 한 경우라도 해당되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표 2>는 조사일 이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63.0%(N=300)로 나타나서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 경험과 신체적 폭력 경험이 각각 56.1%(N=267), 46.0%(N=219)로 나타나서

<표 2> 조사일 이전 1년 동안의 가정폭력 경험 실태
(N=476)

변인	N	%
가정폭력 경험	300	63.0
1. 언어적 경험	267	56.1
2. 신체적 경험	219	46.0
1) 경미한 경험	196	41.2
2) 심각한 경험	137	28.8

언어적 폭력 경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폭력 경험의 하위 유형인 경미한 신체적 폭력 경험과 심각한 신체적 폭력 경험은 각각 41.2%(N=196), 28.8%(N=137)로 나타나서 역시 언어적 폭력 경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부부폭력 노출 경험을 언어적 폭력 노출 경험과 신체적 폭력 노출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38.7%(N=184)로 나타나서 청소년 세 명 중 한명이 부부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인 언어적 폭력 노출 경험과 신체적 폭력 노출 경험은 각각 34.2%(N=163), 23.7%(N=113)로 나타나서 언어적 폭력 노출 경험이 신체적 폭력 노출 경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 경험을 다시 경미한 신체적 폭력 노출경험과 심각한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미한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22.7%(N=108), 심각한 부부폭력 노출 경험은 9.0%(N=43)로 나타나서 경미한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은 54.0%(N=257)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피학대 경험이 있

〈표 3〉 하위 유형별 가정폭력 경험 ($N=476$)

	부부폭력 노출 경험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	
	N	%	N	%
전체 경험	184	38.7	257	54.0
1. 언어적 경험	163	34.2	224	47.1
2. 신체적 경험	113	23.7	170	35.7
1) 경미한 경험	108	22.7	141	29.6
2) 심각한 경험	43	9.0	121	25.4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피학대 경험을 다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언어적 폭력이 47.1%($N=224$), 신체적 폭력은 35.7%($N=170$)로 나타나서 언어적 폭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녀 폭력 피학대 경험을 다시 경미한 신체적 자녀 폭력 피학대 경험과 심각한 신체적 자녀 폭력 피학대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미한 신체적 자녀 폭력 피학대 경험이 29.6%($N=141$), 심각한 신체적 자녀 폭력 피학대 경험은 25.4%($N=121$)로 언어적 피학대 경험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점수에 따라서 비중독 집단과 잠재적 중독 집단, 심각한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10.5%($N=50$)가 심각한 중독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중독 집단은 73.3%($N=349$), 비중독 집단은 16.2%($N=77$)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83.8%가 심각한 중독 상태이거나 잠재적으로 심각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집단간 인터넷 중독 차이 ($N=476$)

	경험	N	M	SD	t
가정폭력 경험	있음	300	2.6942	.65252	2.417**
	없음	176	2.5441	.65768	
언어적 경험	있음	267	2.7001	.65308	2.311*
	없음	209	2.5603	.65693	
신체적 경험	있음	219	2.7391	.66675	3.101**
	없음	257	2.5532	.63893	

* $p<.05$ ** $p<.01$

한편,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t=2.417$, $p<.01$). 이 결과는 언어적 가정폭력 경험 집단($t=2.311$, $p<.001$)과 신체적 가정폭력 경험 집단($t=3.101$, $p<.001$)에서도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경험 집단을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가정폭력 경험의 하위 유형인 부부폭력 노출 경험($t=2.460$, $p<.1$)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t=3.068$, $p<.01$) 모두 경험이 있는 경우 인터넷 중독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 모두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폭력 노출 경험의 하위 유형인 언어적 부부폭력 노출 경험집단($t=2.311$, $p<.1$)과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 경험 집단 ($t=2.818$, $p<.01$) 역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인 언어적 피학대 경험($t=2.582$, $p<.01$)과 신체적 피

〈표 5〉 가정폭력 경험 하위 유형별 집단간 인터넷 중독의 차이 ($N=476$)

		부부폭력 노출 경험				자녀폭력 과학대 경험				
	경험	N	M	SD	t	경험	N	M	SD	t
전체 경험	있음	184	2.7317	.61528	2.460*	있음	257	2.7234	.67352	3.068**
	없음	292	2.5802	.67767		없음	219	2.5394	.62581	
1. 언어적 경험	있음	267	2.7001	.65308	2.311*	있음	224	2.7208	.68212	2.582**
	없음	209	2.5603	.65693		없음	252	2.5658	.62771	
2. 신체적 경험	있음	113	2.7899	.60410	2.818**	있음	170	2.7450	.69351	2.645**
	없음	363	2.5917	.66741		없음	306	2.5797	.63047	

* $p<.1$ ** $p<.01$

학대 경험 집단($t=2.645$, $p<.01$)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인터넷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공격성

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 먼저, 분석을 위해 학업성적은 〈표 1〉에 제시된 5개 집단을 상위 20% 이내의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정형편 역시 〈표 1〉에 제시된 5개 집단을 비교적 부유한 편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 차이와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공격성의 차이 ($N=476$)

변인	구 분	N	M	SD	t
성별	남	372	2.5195	.52268	-.673
	여	104	2.5592	.56272	
학업	상위 20% 이내	125	2.5794	.51755	1.255
	나머지 집단	351	2.5100	.53570	
가정	비교적 부유한편 이상	133	2.5955	.52144	1.724
	나머지 집단	343	2.5021	.53359	

2)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점수에 따라서 비중독 집단과 잠재적 중독 집단, 심각한 중독 집단으로 나누어 세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세 집단 간의 공격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476$, $p<.001$). 공격성의 정도는 심각한 중독집단(2.8400), 잠재적 중독 집단(2.5544), 비중독 집단(2.2071)의 순으로 나타나서 인터넷 중독 정도가 공격성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공격성 평균의 차이를 사후검증하기 위해서 Scheffe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각 집단별 공격성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집단간 공격성의 차이 ($N=476$)

	N	M	SD	F
비중독 집단	77	2.2071 a	.52627	
잠재적 중독 집단	349	2.5544 b	.49185	25.476***
심각한 중독 집단	50	2.8400 c	.56829	

*** $p<.001$

† a, b, c는 Scheffe의 사후 검증($p<.05$) 결과를 나타냄.

3) 가정폭력 경험유무에 따른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중 어느 한 경우라도 경험을 한 가정폭력 경험 역시 유경험 집단의 공격성 평균(2.5817)이 무경험 집단의 공격성 평균(2.4371)보다 높게 나타나서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88$, $p<.01$).

가정폭력 경험을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언어적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의 공격성 평균(2.5942)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공격성 평균(2.44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3.088$, $p<.01$).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도 경험이 있는 집단의 공격성 평균(2.6348)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공격성 평균(2.43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107$, $p<.001$).

가정폭력 경험 하위 유형별 공격성의 차이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공격성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과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가진

<표 8>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간 공격성의 차이 ($N=476$)

	경험	N	M	SD	t
가정폭력 경험	있음	300	2.5817	.53076	-2.888^{**}
	없음	176	2.4371	.52126	
언어적 경험	있음	267	2.5942	.54086	3.088^{**}
	없음	209	2.4440	.50784	
신체적 경험	있음	219	2.6348	.52272	4.107^{***}
	없음	257	2.4374	.52264	

$^{**}p<.01$ $^{***}p<.001$

청소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네 집단을 구성하여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3’의 공격성 평균(2.8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1’의 공격성 평균(2.8199)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집단2’와 ‘집단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집단의 공격성 평균의 차이($F=14.26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간 공격성 평균의 차이를 사후검증하기 위해서 Scheffe 검증을 시행한 결과 가정폭력의 경험 유무보다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여부가 공격성의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정폭력 경험 하위유형별 집단간 공격성의 차이 ($N=476$)

변인	부부폭력 노출 경험					자녀폭력 과학대 경험				
	경험	N	M	SD	t	경험	N	M	SD	t
전체 경험	있음	184	2.6166	.51378	2.904^{**}	있음	257	2.5915	.54238	2.838^{**}
	없음	292	2.4725	.53550		없음	219	2.4539	.50932	
언어적 경험	있음	163	2.6198	.52703	2.733^{**}	있음	224	2.6047	.55310	2.985^{**}
	없음	313	2.4805	.52813		없음	252	2.4602	.50261	
신체적 경험	있음	113	2.6539	.49546	2.901^{**}	있음	170	2.6335	.54744	3.254^{**}
	없음	363	2.4891	.53669		없음	306	2.4697	.51382	

$^{**}p<.01$

〈표 10〉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집단별 공격성의 차이 ($N=127$)

변인	N	M	SD	F
가정폭력 유경험 * 심각한 인터넷 중독 (집단 1)	23	2.8199 b	.4707	
가정폭력 유경험 * 인터넷 비중독 (집단 2)	18	2.3520 a	.5475	
가정폭력 무경험 * 심각한 인터넷 중독 (집단 3)	27	2.8571 b	.6484	14.268***
가정폭력 무경험 * 인터넷 비중독 집단 (집단 4)	59	2.1629 a	.5163	

*** $p<.001$ † a, b는 Scheffe의 사후 검증($p<.05$) 결과를 나타냄.

4.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을 밝히기 전에 가정폭력 경험 변인과 인터넷 중독 변인 및 성별, 학업성적, 가정형편의 통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VIF값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통제 변인들 간에는 대체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상관관계($r=-.001 \sim .171$)를 나타냈다. 그리고 통제변인과 가정폭력 경험 변인, 인터넷 중독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거의 없거나 낮은 상관관계 ($r=-.004 \sim -.087$)를 나타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변인과 인터넷 중독 변인의 상관관계($r=.110$) 역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통제변인들과 가정폭력 경험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확인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중공선성을 문제로 볼 수 있는 상관계수 값인 .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VIF값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2 이하의 값이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통제변인 및 가정폭력 경험 변인과 인터넷 중

〈표 11〉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eta	Beta	Beta
성별 ^a	.028	.025	.031
학업성적 ^b	.043	.054	.063
가정형편 ^c	.072	.081	.077
가정폭력 경험		.142	.102
인터넷 중독		.369	
R ²	.009	.029	.164
R ² 변화량		.020	.135
F	1.427	3.524**	18.409***

** $p<.01$ *** $p<.001$

a, b, c : 가변수

독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통제변인으로 구성된 모델1을 살펴보면, 모델 설명력은 .9%이고 성별, 학업성적, 가정형편의 세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델 설명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2의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가정폭력 경험($\beta=.142$) 변인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3에서의 설명력은 16.4%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인터넷 중독 변인($\beta=.369$)이 가정폭력 변인($\beta=.102$)

보다 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은 가정폭력 경험보다 인터넷 중독 정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부부폭력 노출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을 포함하는 가정폭력 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의 하위 유형인 언어적 폭력 경험과 신체적 폭력 경험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 경험의 하위 유형인 경미한 신체적 폭력 경험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폭력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수준을 ‘비중독’, ‘잠재적 중독’, ‘심각한 중독’으로 구분할 때 ‘잠재적 중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 경험은 모든 유형에서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관련해서 성별, 학업성적, 가정형편의 통제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 유형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격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정폭력 경험은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격성에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여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가진 두 집단이 비중독 두 집단보다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경험 변인과 인터넷 중독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변인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연구의 의의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표적인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로는 여성가족부(2004)의 조사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부부폭력발생률이 15.7%로 전국 기혼가구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6가구 당 1가구 꼴로 부부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우

리 사회에서 부부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3가구 당 1가구에서 부부폭력이 있다는 결과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자녀폭력 피학대 경험률이 54.0%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51.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조사와 비교할 때 부부폭력과 자녀폭력 발생률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어도 3가구 가운데 1가구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고, 약 2가구 중 1가구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가정폭력이 많은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0.5%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나타나고 잠재적 중독 집단이 7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청소년의 83.8%가 잠재적 중독 이상의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96.2%에 달하고 있다는 2004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에게 이제 인터넷은 삶의 일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인터넷 사용의 금지보다는 올바른 사용 지침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건강한 인터넷 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춘범(2005)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인터넷 중독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난 양돈규(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아(2004)의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현실불만족이 많았다는 연구결과 및 Walther(1994)의 현실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혹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Griffithus(1997)의 인터넷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매몰된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적으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가정에서 폭력은 아동을 무력하게 느끼게 한다. 폭력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무력함을 보상하려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같은 오락에 몰입하게 된다. 즉 가정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허전함을 해소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인터넷을 선택하게 되고, 점점 오랜 시간 컴퓨터에 매달리게 되어 그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은 인터넷 중독을 가져오게 한 폭력적 가정환경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노력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시 한번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부모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당사자인 부부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생에 높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정옥과 박경규(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간 폭력관찰이 학교폭력 중 금품갈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김정옥과 장덕희(1999)의 청소년의 가정 폭력 경험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의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다 위험한 것은 청소년이 장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족성원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자녀 양육에 폭력행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동기에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폭력률이(아버지 53%, 어머니 64.4%) 두 가지 모두 다 경험하지 못한 경우(아버지 36.8%, 어머니 5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의 대물림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가정폭력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행사할 미래의 공격성을 예상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폭력, 즉 부모의 자녀학대, 부부간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이선애(2004)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비위험군에 비해 충동성이 더 높아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좋지 않다고 하여 있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Young(1999)의 연구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 역시 가족, 일, 대인관계 등 주요 일상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의 과학적 근거가 일본의 뇌신경과학자인 모리 아키오(2003)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는 장기간 인터넷 게임을 한 어린이의 뇌파가 중증 치매환자의 뇌파와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시각계의 신경회로 활동이 너무 강력하여 이성이나 창의성, 윤리의식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전부피질 세포활동이 거의 정지해 버린다는 것이다. 사고기능을 가진 전부피질의 기능이 저하되면 자제력이 상실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의 대부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격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보다는 인터넷 중독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전통적으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받던 청소년들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부모보다 인터넷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 정보전달, 교육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96.2%에 달하고, 잠재적 중

독 집단이 73.3%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이 얼마나 깊이 인터넷에 밀착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부모보다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경험보다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통제력이 강하지 않고 자기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심한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하기 쉽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되어 있었으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실 속의 대인관계를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마련은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격성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증적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관리전략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 표본이 아니라 임의표집된

서울 일부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형편 변인 측정에서 정확한 부모의 수입 정도를 알고 있지 못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형편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임을 밝히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유형별로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 이외 가정 내 다양한 갈등변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가정폭력과 인터넷 중독 사이를 중재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상온(2004). 원예치료가 아동의 게임중독과 공격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1993). 자녀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1).
- 김옥순·홍혜영(1998). 통신중독증. *정보사회와 청소년 I*,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애숙(1993).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 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정옥 · 장덕희(1999).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종범 · 한종철(2001).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 연구-자존감, 공격성, 의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재엽 ·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혜원 ·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효선(2002). 인터넷 게임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리 아키오著 · 이윤정譯 (2003). *게임뇌의 공포 사람과 책*.
- 박창한(1993). 아동의 가정환경특성에 따른 공격행동 유형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대인관계 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 연구*, 10(3), 481-500.
- 예릭 프롬著 · 황문수譯(2002).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 이서원(2005). *부모의 폭력과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강릉시 2005 연구보고서.
- 이선애(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2005). 인터넷 중독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2(1), 43-61.
- 이현아(2004).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특성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3), 27-49.
- 주상현(2004).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라(1989).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2005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200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ummings, E. M.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 Guilford Press.
- Griffiths, M.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Psychological Report.
- Harold G. T., & Conger, R.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etherington, E. M., Clingempeel, W. G., Anderson, E. R., Deal, J. E., Hagan, M. S., Hollier, E. A., & Lindner, M. S.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
- Hughes, H. M. (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77-90.
- Jaffe, P. G., Wolfe, D. A., & Wilson, S. K.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 Sage.
- Orzack, M. H. (1999).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computer addictions. *Directions in Psychiatry*, 19, Special Report.
- Patterson, G. R. (1986). The contribution of siblings to training for fighting : A microsocial analysi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 Yarrow(Eds.). *Developmental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 Research, theory and issues*, 235-261. New

- York : Academic Press.
- Peled, E., & J. L. Edleson. (1995). Process and Outcome in Small Groups for Childrens of Battered Women. pp. 121-144. in *Ending The Cycle of Violence : Community Responses to Children of Battered Women*. edited by E. Peled, P. G. Jaffe and J. L. Edleson. Newbury Park, CA : Sage.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Children :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Walther, J. B. (1994).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working paper*.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 Northwestern University.
- Wolfe, D. A. (1985). Child abusive parents : An empir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7, 462-482.
- Young, K. S. (1999). *Caught in the Net*.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London : Academic Press, 61-75.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4일 채택